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손학규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손 대표의 진정성과 집권 의지, 그리고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고 대권 가도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 첫째,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손학규 대표가 넘어야 할 난제들

더구나, “지난 대선 때 잃어버렸던 600 만표를 되찾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집권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손 대표의 안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손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선언했듯이 당분간 계파 화합을 통해 당을 추수해야 한다.

노선을 삭제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념적 진보보다는 생활정치와 실천적 진보를 강조하면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찬성하게 되면 정체성 문제에 직면할 게 될 것이다. 셋째, 독자 세력화를 선언한 486그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는 강원(이광재)-충청(안희정)-영남(김두관)으로 연결되는 젊은 친노 벨트를 우군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넷째,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의로 칼럼

김공식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암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독감’이 아닐까 싶다.

WHO는 폐렴구균성 질환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0여 개국에서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명한 백신 선택으로 폐렴구균 예방을

하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폐렴은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폐렴구균이다.

WHO는 폐렴구균성 질환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0여 개국에서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고

심남식



전남도가 주관하는 관광의 날 기념식이 6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의 언어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의 입구에 사용가능한 언어를 표시하는 ‘언어표지(言語標識)’ 선포식과 함께 G 20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도 마련된다.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지자체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대 서비스로 전남관광 할로 뚫자

관광 유치는 35위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5월까지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다. 외래 관광객이 좋아하는 소품, 외국어 안내시설, 양질의 가이드 등이 갖춰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일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비만 인구 급증 농촌에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야

도시에서는 중년층 농성들의 비만과 그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을 많이 걱정한다. 그러나 농촌도 과거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체식을 적게 하는 가운데 이런 위험성이 높은 비만농민이 늘어가게 된다.

로품을 구입하고 식단도 도시 가정과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농사일도 스트레스가 많아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식사량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

학생 교통카드 도난·갈취의 표적이라니

최근 광주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에서 대중교통 결제카드인 ‘마이비’를 훔치거나 갈취하는 사건 등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난을 당했으며 상당수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삼급 학생들에게 교통카드를 빼앗겼다고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등 총동구매의 소지가 다른 학교 일부 학생들에게 ‘도박’(盜竊)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부작용 큰 ‘충장축제’ 진행방식 개선돼야

광주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인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동구청이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이맘때쯤 개최하는 충장축제가 지나친 교통혼잡을 유발한 시민불편 가중과 주변 상권 위축 등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면통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큰 문제는 주변 상권의 위축이다. 음식점을 제외한 충장로 상가와 금남지하상가는 축제기간 동안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평소보다 30~40%나 떨어질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無等鼓

네덜란드 출신 거스 하딩크 감독은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승부를 결정지어라. 우리에게 킬러가 필요하다(Kill the game, we want a killer)”라고 다그치며, 선수들의 킬러 본능(killer instinct) 부재를 탄탄히 하곤 했다.

자’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축구에선 최후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해결사를 말한다. 스페인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디에고 비에라(바르셀로나), 독일 국가대표팀 킬러 미로슬라프 클로제(바이에른 뮌헨) 등이 현세의 대표적인 골잡이들이었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